

'합법' 외피 쓴 노동운동 탄압



<3> 정부의 제도적 노동통제 정책

남한의 지배계급은 전두환 정권에 의해 심화된 파쇼권력의 사상 유례없는 정치적 위기를 6.29 선언을 통해 극복하려 하였으며, 노태우정권은 이를 자신의 정권 창출의 직접적인 기반으로 확보하였다. 따라서 노태우정권의 존립근거는 좋은 싫든 일정한 계급을 약속할 수 밖에 없었던 6.29에 의해 규정될 수 밖에 없다. 노태우정권은 독점자본의 막강한 권력, 독점자본의 막강한 물리적, 행정적, 조직적 지원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개혁의 이미지를 전면에 내걸었으며 당선된 것이다. 그러나 노태우를 지지한 표는 36%에 불과했으며 최근 들어서는 더욱 떨어져 3월19일 사무급

용노련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단지 4.4%만이 민자당을 지지할 뿐이었다. 이는 노동권의 허약성을 규정하고 있다. 시일이 흐를수록 노태우정권은 독재정권의 본질을 적나라하게 노정하고 있다. 그들은 전두환 정권의 온갖 죄악, 범죄를 청산할 수 없었으며 부조리 민중주의적 개혁을 수행할 수 없었다. 그들이 한 일은 오로지 전 민중적인 저항을 약간 무마하는 정도의 개량책이다. 그러나 상황은 그러한 개량을 통한 권력의 온건한 유지를 허용하지 않는다. 민중의 힘은 비록 정치적으로 조직화되지 못하고 있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그대로 다른 계급들에게 들리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 힘은 지배자들이 항상 고려해 놓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강대하다. 집권 이래 88년말 이전까지 노태우정권은 성장하는 노동자계급 및 민중운동에 대해 적어도 겉으

로는 유연한 척 대응했다. 그들은 87년 이래 계속되는 노동자 계급에 의한 노동조합의 결성과 광범위한 파업투쟁에 대해 애써 태연한 척 하였다. 88년 11월13일 6만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여의도에서 영웅적으로 전개되었던 노동법 개정 투쟁에 대해서도 허구적이지는 했지만 '일부 독소 조항의 삭제 및 개정'으로 응대하였다. 그러나 36%에 지지를 받지 못했던, 보다 직접적으로는 6.29 선언이 갖고 있던 근본적인 한계로 인한 새로운 지배방식의 불안정성은 조만간에 드러났다. 노정

권의 통치방식에 밀려 못만 드러나면서도 파쇼적 계급의 무엄한 반란을 지켜볼 수 밖에 없었던 자본가들은 자신들의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이곳저곳에서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하였다. 88년말의 노태우 특별선언이래 개진된 풍산금속 등에 대한 공권력 탄압, 개정된 노동법에 대한 거부감의 행사는 반격의 시작을 의미하였으며, 90년 이후 합법을 가장한 탄압은 보다 교묘하게 가해지고 있다. 이제 관습을 노동자계급에 대한 법적, 제도적 노동통제정책의 세부내용으로 돌려보자.

유리한 무기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서 '노동부 지침'이라는 것이 있다. 현재의 노동법을 비롯한 파쇼악법이 있기는 하지만 노동자계급의 진출을 아예 무력화시키고 싶어하는 정권과 독점자본에서 그 정도로는 성이 잘 리 없다. 현행법상으로는 규정이 없는 까닭에 파업투쟁만 하게 되면 항상 정점으로 부각되는 '파업기간중 임금지급 문제' '해고자들에 대한 법적 지위 문제' 등에 대해서도 어떤 형태로든 썩기를 막을 필요가 저들에게는 간절한 것이며 고심 끝에 생각해 낸 것이 '노동부 지침'이다. '노동부 지침' 가운데는 90년말 이래 확대되는 것으로서 '파업시의 손실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소위 '인사·경영권 문제'도 포함되어 있다. 90년 10월13일 노태우정권이 '법적외의 전횡'을 선포한 이후 후속조치로 당시 최영철 노동부장관에 의해 보고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대우의 주식회사 건화에 최초로 적용된 이래 최근의



노태우정권 하에 노동운동이 탄압되고 있다.

'인사·경영권'이라는 것은 조합원들에 대한 해고를 포함한 정계, 감원, 임종전환 등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직결된 내용에 대해서조차 이른바 자본가들의 '인사·경영'에 관한 고유한 권한이므로 노동조합법상의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인건에 있어서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이 있어도 노동부 지침이라는 편법(?)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것이 법에 의해 적법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한 불안한 탄압방식이 아닐 수 없다. 노동부 지침을 통해서 수도없이 반복해 왔던 '해고자에 대한 조합원 지위 불인정'이 사법부에 의해 뒤집어졌지만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지침이 그토록 믿어 마지 않던 우군의 손에 의해 부서지는 꼴을 더이상 방관할 수 없는 것이다. 이제 그들은 보다 확실한 안전판을 마련하기 위해 뛰고 있다. 노동법 개악이 그것이다. 89년 3월 당시 여야의 합의에 따르면 노동법이 노태우에 의해 거부권이 행사된 이래 정권과 독점자본은 단순한 개정의 저지만이 아니라 노동법의 개악을 수차례 시도한 바 있다. 그 내용 또한 앞서 얘기한 무노동 무임금의 명분화, 단체 교섭대상에서 인사·경영권의 제외, 노동조합법 3조4항(해고자 조합원 신분유지 조항) 개정 등 이외에도 현재 주44시간으로 되어 있는 법정노동시간의 46시간으로 연장, 휴일연장 등으로 광범위하다.

물론 이를 관철시키는 일이 그다지 쉬운 일만은 아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87년 이래 성장한 노동자계급 및 민중운동 진영의 역량은 이후의 과정에서 일정부분의 침체를 겪기는 하였으나 탄압에 의해 십사리 사그라질 만큼 허약하지는 않다. 여기에 향후 2~3년간의 권력재편기를 앞둔 정치권력의 불안정성은 사소한 도발에 대해서조차 유권자의 눈치를 살펴야만 하는 상태에 있다. 91년 입부를 앞두고 정권과 독점자본에 의한 도발이 한층 강화되고 있다. 3월19일 '노사관계 사회적 합의'를 위한 협의회라는 것이 어용노총과 노조 그리고 자본가, 정부에서 참여한 가운데 창와대에서 있었다. 물론 이 자리에는 예외없이 정권과 독점자본의 선전장에 불과했으며, 최병렬 노동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산업현장의 활력과 질서의 회복 등을 내세우며 다시한번 임금인상의 자제와 법과 질서의 태두리 내에서의 노동운동을 강조했다고 한다.

모두 다 고스란히 그들 자신에게 돌려져야 할 것들이다. 우리의 요구는 이렇다. 주44시간 노동에 의한 최저생계비 정책, 인사·경영권 분리 분쇄, 노동부 지침의 철폐 및 노동법 개악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

구 본 준
(전노협 조직국 위원)

'노동부 지침'쟁의법 무시한 무법자 산업구조조정 위한 '인사권'장악 음모

제3차 기업 금지 조항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탄압의 유력한 무기로 되고 있으며 적용범위 및 대상도 확대되고 있다. 금년 들어서만도 제3차 기업금지 조항을 이유로 구속된 노동자만 해도 연대회의 노조 지도자 7명, 서울 중원전자, 서울 엔진 베어링 노조 위원장 등 9명에 이르고 있다. 연대회의 노조지도자에 대한 대량구속의 경우 단지 대우조선 파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는 이유만으로 구속된 실정이다.

대우전자 인천공장, 한진중공업 등 확대일로에 놓여 있다. 이는 노조활동의 와해 내지는 무력화 및 대상도 확대되고 있다. 금년 들어서만도 제3차 기업금지 조항을 이유로 구속된 노동자만 해도 연대회의 노조 지도자 7명, 서울 중원전자, 서울 엔진 베어링 노조 위원장 등 9명에 이르고 있다. 연대회의 노조지도자에 대한 대량구속의 경우 단지 대우조선 파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는 이유만으로 구속된 실정이다.

동원위원회에서 자본가의 인사·경영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개선 명령을 내려 이제껏 투쟁이 계속되고 있으며, 대우조선·현대중공업 노동조합도 이 문제로 인하여 현재까지 파업을 경험하였거나 또는 파업을 앞두고 있는 상태이다. 올 봄의 임투를 앞두고 자본가들은 임금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양보하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인사·경영권'만큼은 결코 양보할 수 없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인사·경영권과 관련한 문제는 노동자들의 반발을 최소화 하는 가운데 노동자들의 회색을 바탕으로 자신들에 유리한 방향으로 산업구조조정을 마무리지으려는 정권과 자본의 중장기적 계획에서 나오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자본주

동원위원회에서 자본가의 인사·경영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개선 명령을 내려 이제껏 투쟁이 계속되고 있으며, 대우조선·현대중공업 노동조합도 이 문제로 인하여 현재까지 파업을 경험하였거나 또는 파업을 앞두고 있는 상태이다. 올 봄의 임투를 앞두고 자본가들은 임금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양보하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인사·경영권'만큼은 결코 양보할 수 없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인사·경영권과 관련한 문제는 노동자들의 반발을 최소화 하는 가운데 노동자들의 회색을 바탕으로 자신들에 유리한 방향으로 산업구조조정을 마무리지으려는 정권과 자본의 중장기적 계획에서 나오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자본주

요원한 군정정치적 중립



오 세 운
(본보 취재부장)

기무사 "명칭 변경후에도 호시탐탐 민간사찰

□거짓말과 혼돈시대
지난해 군복무를 탈영했던 윤석양씨에 의해 국군보안사의 민간인 사찰 행위가 온 사회를 잠잠 놀라게 했다. 이에 대한 국방부의 해명 역시 통상적이 고 뻔한 것이었다. "이는 정치적 목적의 사찰이 아니라 전 시나 기업사 불순세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 이들은 이런 해명이 거짓 해명인 줄 알면서도 그러하니 하며 넘어가고 곧 잊어버리고 마는 현대인의 편리한 사고방식을 잘 터득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의 판단은 들어 맞았고 사회는 잠시 분노한적 시늉만 보였을 뿐 곧 마음 편하게 잊어버렸다. □갑시에 의존하는 나라
70년대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준다. 닉슨 대통령은 단지(우리 사회의 시각으로 보아) 정적인 야당의 주요인물을 도청했다는 것이었다. 정적과 비위 거슬리는 대상에 대한 도청과 사찰, 세부사찰이 다반사로 행해지는 한국사회로서는 그야말로 사소하기 그지없

는 것이었음에도 미국이 지금까지 보여왔던 수많은 제국주의적 속성과 그에 따른 행위들이 감춰져 있는 것도 그 속에는 '이같은 일면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를 표방(적어도 겉으로나마)하는 나라들은 미국을 선진 민주주의 국가의 최정상상으로 곧추세우며 기리고 있다. 그러나 정작 참민주주의의 모습을 본받고 실천해 나가는 나라는 얼마 되지 않는다. 민중은 통치자의 반대개념인 피치자일뿐이며, 보호와 감시의 대상일 뿐이다. 오죽하면 감시할 요원이 경찰·검찰·안기부 요원만으로 모자라 보안사 요원까지 필요했을까만. 그런 보안사가 개입했다고 했다. 명칭도 선조들이 사용했던 '국군기무사'로 바꿨다고 한다. 겉히 '바라보기조차' '합법' 보안사령관에게서 대신 그런일 없을거라고 했다면 하지만 채 1년이 되지 않아 활자와 영상 매체는 이미 개입한 기무사의 창작품을 소개했다. 민간인에 대한 사찰이 다시 시작된 것이다. 다시가 아니라 계속되고 있었을 뿐이었음을 보여준다. □사찰이 아닌 조사
기무사는 다시 한번 속보하는 소리를 되뇌었다. "그것은 사찰이 아닌 단순한 조사였을 뿐"이라고 우리는 70만 군대라는 조직의 원활과 안전을 위해 군자체의 정보기관이 존재할 수는 있다고 본다. 그러나 그것은 법과 기본권이 벗어날 수 없는 최소한이어야 하며 군 내부에 국한되어야 한다. 거짓말이 능력으로 대우받는다는 것은 결코 진실일수 없다.

朔風

1984년 박노해의 시집 "노동의 새벽"이 발표되면서 '박노해 현상'이라는 신종어가 더불어 탄생했다. 이 사회에 끼치는 박노해의 영향을 통털어 일컫는 말이다. 그것이 긍정적인 것이든 부정적인 것이든 분명히 그 현상은 이 땅의 한 부분을 차지했었고 어쩌면 이후에도 계속될지도 모를 일이다. '얼굴없는 시인' 신비의 인물이 신문이나 주간지에 그 얼굴을 드러냈다. 그가 얼굴없는 시인으로 남아야 했던 것이 자의가 아니었듯이, 이제는 수갑을 찬 모습으로 그는 자신의 모습을 드러냈다. 그간 그의 외침은 크고 넓게 퍼졌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는 김우중회장에 그는 자신의 저서와 찬반투표를 하라고 했다. 이 나라의 대통령에게 "노

태우는 '물태우'가 아니라 이미지메이킹에 뛰어난 '물태우'이다"라고 일갈했다. 하지만 이런 말들이 중요한 것은 아닐 것이다. 정작 중요한 것은 그가 그렇게 밖에 말할 수 없는 '왜?'라는 이유일 것이다. 그렇다만 안기부가 수사를 할 때 '왜?'라는 그 이유도 함께 수사를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안기부의 수사는 그것을 제외 한 수사가 될 것이 자명한 것이므로 박노해의 초기 사들을 살펴보면서 그 궁극의 대강을 훑아나가야 할 듯 싶다. "내 몸속의 정형 손은 / 싸늘히 식어 어둠과 / 양치기바람 공장 담배막 밑에 묻는다..." 한 사람의 노동자 시인이었을 당시 그가 보고 겪은 일부에 지나지 않

모습 드러낸 '얼굴없는 시인'

는 것을 쓴 '손땀'이라는 시다. 타이핑을 먹으면서 철야작업을 해야하는 시대의 환경만이 그가 접할 수 있는 세계의 끝이었다. 하지만 가진자는 '변영의 조국'을 향락하면서 살고 있다. 일 개 노동자의 눈이 아니라 해도 누가 꺾박박는 자인지, 누가 억압의 사슬을 휘두르는 자인지 그의 시를 본사람은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 그가 던진 현장의 목소리에 지식인도 놀라고 여타 시인도 놀랐다. 그의 시집이 7만부나 팔렸다. 이것이 80년대의 현실이었으며 90년대의 현실이기도 하다. 10년이라는 세월의 간극을 두고보면 그것은 과연 무엇인가? 5권이 60밖에 더 되었는가? 다시 한 번 신문을 뒤적여 본다.

30대의 사람이 수갑에 묶인 채 외치고 있다. 부르튼 얼굴에서 소리 없이 외치는 그의 목소리가 사전을 뚫고 정쟁하게 고막을 치고 있다. 그도 예외없이 법정에 서야 할 것이다. 양심수가 되고 장기수가 될 것이다. 그러나 박노해는 노동자가 전쟁 법정에 서야 한다 한 시인을 혁명가로 만든 이 땅과 이 땅의 정치도 마땅히 법정에 서야 할 것이다. 법이 공정하다면 둘의 '찬·반'이 혁명의 유·무죄를 판결하는 칼처럼 시퍼렇게 번뜩여야 할 것이 아닌가? "새벽뜨린 가슴위로 차가운 소주를 붓는다" (民海)

안진으로 지켜가는 행복한 사회

한국타이어

프리웨이, 눈부신 자유의 끝없는 대장정...

서부로 서부로 이어지던 개척정신과 독립의 함성으로 대륙을 달리던 자유의지가 있었기에 미국의 고속도로는 프리웨이라 부릅니다.

총연장 67,058km로 거대한 미국대륙을 중형단하는 끝없는 자유, 프리웨이 - 그곳을 우리의 한국타이어가 달리고 있습니다.

150여개국에 수출, 세계의 도로를 달리는 한국타이어는 미국의 눈부신 자유가 되어 오늘도 프리웨이를 가르며 힘차게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든 우리 타이어

한국타이어 TIRE